

교회소식

-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일일 한 끼 금식으로 주의 고난에 동참하기 바라며 금식 헌금은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 한 주간 저녁기도회가 오는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본당에서 있습니다. 신앙을 점검하는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제: 행로에 지친 인생 믿음으로 경주하자
시간: 오후 7시 30분

	성경	제목	기도자
월	누가복음 24:22-27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김자경
화	신명기 29:2-9	내 믿음은 둔하지 않은가	박제란
수	예레미야 29:11-13	내 믿음을 보여라	이기중
목	요한복음 5:39-43	내 믿음의 내적인 증거	박후임
금	민수기 14:10-11	불신앙의 옷을 버려라	이애란

- '예수 중심 성경 읽기'는 구약 역사서의 시작인 여호수아 3장 - 23장까지입니다.
- 공동체 인도자 성경공부가 화요일(12일) 오후 7시 30분 줌 영상으로 있습니다(교재 예습).
- 오늘 5월 1일 주일은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는 다음 주일에 알려 드립니다.
- 김창조 집사(김명옥 집사) 가정 이사했습니다.
주소: 2A Woodside Road, Mt Eden

A p r i l

교회사역일지

4월 3일(주일)
사순절 다섯째 주일
4월 10일(주일)
종려주일
4월 17일(주일)
부활주일
4월 18~22일
한 주간 저녁기도회
4월 24일(주일)
성찬주일

기도순서

4월 17일 (주일)
김병진 목사
4월 20일 (수)
이기중 권사
4월 24일 (주일)
손조훈 집사
4월 27일 (수)
김민경 집사

예배봉사자

예배 안내
손조훈, 박영선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 허영순,
박혜정

St Luke's Church
130 Remuera Road,
Remuera, Auckland
M 021 968 388
E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
/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오직
기도와
말씀
으로
빌립보서 4:6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1:00 pm
청년예배 2:45 pm
유아부 1:00 pm
아동부 1:00 pm
청소년부 1:00 pm
수요예배 7:30 pm

섬기는사람들

담임목사 이태한
부목사 이성훈
전도사 김양이

종려주일

24권 15호 2022.04.10

주 일 예 배	오후 1시 00분	인도: 이태한 목사
찬 양		주일 찬양단
예 배 로 부름	마가복음 11:9-10	인도자
✧ 찬 송	43장	다함께
✧ 참 회 의 기 도		다함께
✧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 송	151장	다함께
대 표 기 도		박병민 장로
성 경 봉 독	누가복음 23:32-38	인도자
찬 양 대 찬 양	예수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 교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태한 목사
찬 송	주님 가신 길	다함께
헌 금 기 도		인도자
교 회 소 식		인도자
✧ 공 동 성 경 읽 기		다함께
✧ 응 답 송	411장 (1,3절)	다함께
✧ 축 도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선교란

이번 주는 베트남 이지양, 한진숙 선교사 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3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온 지구촌이 코로나로 몸살을 앓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가 끝나기도 전에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삶의 무게가 더욱 무겁습니다. 전염병과 전쟁으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인생을 그림자와 같은 허탄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며 나누며 살아가기도 모자라는 이 시대에 욕망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습에서 마지막 말세에 대한 징조라 배우게 됩니다. 마 24:6-7절에 여기저기서 전쟁의 소식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구합니다. 겸손함으로 엎드리며 회개함으로 우리들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자비와 긍휼함으로 구원해 주시도록 구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2022년도 3월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 참으로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 앞에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물어봅니다. 잘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기준에 휩싸여 넘어가지는 않는가? 내게 말씀하신 소명을 따라 오늘도 승리의 삶으로 충만한가? 자신을 돌아봅니다

비대면 사역이 2년을 넘어가면서 배우는 것 있습니다. 대면 사역을 왜 그리 힘들게 하게 하셨는지를 이제 깨닫습니다. 현지 목회자들과 실수하고 넘어지면서 배우게 하신 현장 사역들을 이제는 현지 교회들이 너무 멋있게 만들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저의 모습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선교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안식년으로 22년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14년을 사역하면서 치아가 손상되어서 현재 치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맞이하는 안식년을 뜻있게 보내려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2년 3월 26일 사랑의 빛진 자 이지양, 한진숙 드림

기도제목

1.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2.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그리고 공급하심을 계속 경험하도록.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찬	양	수요 찬양단
기	도	김명옥 집사
성	경	마가복음 2:1-12
경	봉	죄를 사하는 권세
독	독	이태한 목사
설	교	150장
찬	송	다같이
합심기도/주기도		

나눔란

2022년 4월 3일 주일예배 설교말씀 <고난의 영적 원리> 요한복음 11:1-6

삶의 고난에 대해 갖는 태도는 중요합니다. 고난 속에는 숨어있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만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곧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니(롬 8:28) 이 영적 원리만 고난의 현실을 축복과 영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은 고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은 친근한 사이인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듣고 서도 이들을 더 지체하셨습니다(6). 예수님께서 도착하자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벌써 냄새가 난다고 말했습니다(요 11:39). 예수님은 죽은 것이 확실한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고난보다 크심을 드러내려 이들을 지체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진흙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용도에 맞는 그릇으로 빚어 가십니다. 이 영적 원리를 알 때 우리가 사방으로 육여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나타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고후 4:7-10, 17).

2)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고난이 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그 원인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도 흥해를 건너가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라'는 기쁨의 찬양을 하며 바로 광야라는 고난으로 들어갔듯이(출 15:2) 구원의 여정에 반드시 있는 광야 고난은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이며 애굽의 악한 흔적을 씻어내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사생자가 아닌 친 자녀이기에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것임을(히 12:7-8) 깨달아야 합니다. 광야에서도 물과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먹이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나사로를 영적일 뿐 아니라(5) 친구처럼(3)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확증해 주신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롬 5:8) 기억하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어(요 3:16) 멸망이 아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고난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3) 고난조차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4).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고난 당할 때 자신을 성찰하는 '생각한다'는 뜻과 고난 중에 잘못된 것을 깨달아 '옳게 바로잡는다'는 뜻과 자기 자신을 찬양하며 살아왔지만 고난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절대적 영광을 뜻합니다. 고난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은총을 입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굳게 세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 고난 앞에서 세 번이나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하신 예수님도 두려우셨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은혜의 때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삶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깨달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갈보리 온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1. 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모든 성도들이 체험하는 교회가 되도록.
2. 한 주간 기도회에 성령님의 은혜가 부어져 믿음을 회복하도록.
3. 이웃을 섬기며 주의 고난의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